

제 314호 · 2015년 7월 8일

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

총괄 이성우 실장,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

KMI

국제물류위클리

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

| CONTENTS |

물류정책·사업동향

1. Cosco, 초대형 선박 발주 경쟁에 가세
2. 칼라일 그룹, 중국 ANE Logistics에 1.2억 달러 투자 예정
3. 키프로스 공화국, Limassol port의 민영화 입찰 공고
4. 센강-노르 간 운하 프로젝트 허가

물류시장동향

1. 세계은행, 인도 화물철도공사에 6억 5,000만 달러 차관 승인
2. DHL, 카자흐스탄 철도공사와 철송관련 MOU 체결

공지사항

1. 중소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
2. 2015년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 공모



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물류정책 · 사업동향

□ Cosco, 초대형 선박 발주 경쟁에 가세

- 최근 CKYHE 얼라이언스의 구성원인 Cosco가 유럽 경쟁 선사에게 대응하기 위해 2만TEU급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발주를 준비중임
 - 특히, 최근 Maersk사가 19,630TEU 17척을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한 이후 Cosco도 초대형선 발주 경쟁에 참여한다고 발표하여 향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
- Cosco는 20,000TEU급 9척(옵션 4척)에 대한 계약을 상하이 와이가오차오, 난통 Cosco KHI, 대련 조선소 등 3곳의 조선소와 발주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다
 - 선가는 척당 150백만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, 인도시기는 2017년 하반기로 예상됨
 - 현재 이사회에서 계약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, Cosco가 2014년부터 선대 개편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점, 최근들어 초대형선 발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 체결 전망은 낙관적임
 - 만약 계약이 체결된다면 Cosco는 CKYHE 구성원 중 금년 1월에 유사한 크기의 초대형선 11척을 발주한 Evergreen에 이어 두 번째로 초대형선을 확보하는 일원이 됨
- 당초 Cosco는 수요문제 및 초대형 선박의 활용성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며, 항만시설도 분명한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했으나, 최근 입장을 선회함
 - 당초의 우려는 최근 SeaIntel의 분석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데, 3월 아시아-유럽항로의 소석률은 약 77.8%로 항로에 투입된 선대 개편이 필요하고, 현재의 초대형선의 대부분이 항만 시설 능력과 경제적 측면과 비교했을 경우 너무 크다는 것임
 - 그러나 이러한 선복과잉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,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 경쟁은 오히려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Cosco도 생존을 위해 발주 경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한 것으로 판단됨
 - 또한 최근 21,100TEU 6척을 발주한 OOCL의 모회사인 OOL의 Tung Chee-chen 회장은 초대형선 발주 경쟁은 지속될 것이며, 현재 단위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여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초대형선 발주라고 주장한 점도 영향을 미침
- 2M도 2018년까지 51척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, 이에 대항하기 위한 여타 얼라이언스의 초대형선 확보도 치열해져 향후 선박의 대형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
 - 따라서 부산항 등 주요 환적항만은 초대형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접안능력 및 항로 수심 등을 갖추어 대고객 서비스 능력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짐

자료 : www.lloydlist.com, 2015.6.5.

김근섭 부연구위원 (☎ 051-797-4662, gskim@kmi.re.kr)

□ 칼라일 그룹, 중국 ANE Logistics에 1.2억 달러 투자 예정

- 미국의 대형 사모펀드인 칼라일 그룹(The Carlyle Group)이 중국 상하이의 ANE Logistics에 약 1억 2,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
 - 계약 청산 조건 및 규정(customary closing conditions)에 따라, 이번 계약은 2015년 3사분기에 완료될 예정임
 - 칼라일 그룹은 "CARLYLE ASIA PARTNERS IV" 펀드를 통해 투자할 예정임
- ※ 칼라일 그룹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 "CARLYLE ASIA PARTNERS I ~IV"의 4개 펀드와 "CARLYLE BEIJING PARTNERS FUND" 등 5개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, 2014년 5월과 8월에 우리나라의 "ADT 캡스"와 중국의 "Ganji.com"에 투자한 바 있음
- 2010년에 설립된 ANE Logistics는 상하이에 본사가 있으며, 중국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, 소량트럭화물(Less Than Truckload; LTL) 운송전문 프랜차이즈 기업임
 - ANE Logistics는 15kg에서 3톤 가량의 화물에 대해 도로운송 및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
 - ANE Logistics는 중국의 LTL 산업에서 프랜차이즈 모델을 개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, 자가 분류 센터, 계약기반의 터미널간 운송 트럭, 수배송 프랜차이즈 가게 등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배송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음
- 칼라일 그룹의 관계자는 "중국 경제의 구조조정 및 전자상거래 발전에 따라 LTL 물류 산업의 성장 및 통합 등이 이루어 질 것"이라고 밝히고, "ANE Logistics의 프랜차이즈 모델과 관리 능력이 성장 모멘텀을 창출할 것"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음
- ANE Logisitcs의 CEO인 왕용준(Wang Yongjun)씨는 "프랜차이즈 모델에서 칼라일의 경험, 강력한 입지 및 중국에서의 검증된 투자기록을 높이 평가"하며, "앞으로 인프라를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하며, 신규 비즈니스를 도입할 계획"이라고 밝힘

자료 : 칼라일 그룹 보도자료, 2015.6.28.

송주미 전문연구원 (☎ 02-2105-2872, jmsong@kmi.re.kr)

□ 키프로스 공화국, Limassol port의 민영화 입찰 공고

- 키프로스 공화국의 교통 · 통신부는 키프로스 남부의 리마솔항만(Limassol Port)의 민영화 방안을 입찰공고했음
- 리마솔항만은 키프로스 공화국의 인구 규모와 경제활동 기준 두 번째 도시인 리마솔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는 항만으로, 키프로스 공화국의 주요 항만 중 하나임
 - 항만부지는 150만 평방미터, 평균 수심 14미터, 전장(LOA, Length Over All) 240미터 규모의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음
- 또한 리마솔항만은 키프로스 공화국의 컨테이너 화물을 전량 처리하고 있는 주요 항만임
 - 컨테이너 외에도 벌크화물 등을 포함하여 키프로스 공화국 전체 화물의 40~50%를 처리하고 있으며, 여객수송 역시 전체의 75% 이상을 담당하고 있음
- 입찰을 희망하는 경우 7월 17일 전에 입찰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, 최종 낙찰자 발표는 2016년 1/4분기에 내에 발표될 예정임
 - 최종 낙찰자는 장기 계약을 통해 컨테이너터미널 시설, 다목적터미널, 해운 서비스 등의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음
- 키프로스 공화국 정부는 리마솔항만 민영화가 항만 활성화 및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 - 제안서 제출 및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.eprocurement.gov.cy에서 확인할 수 있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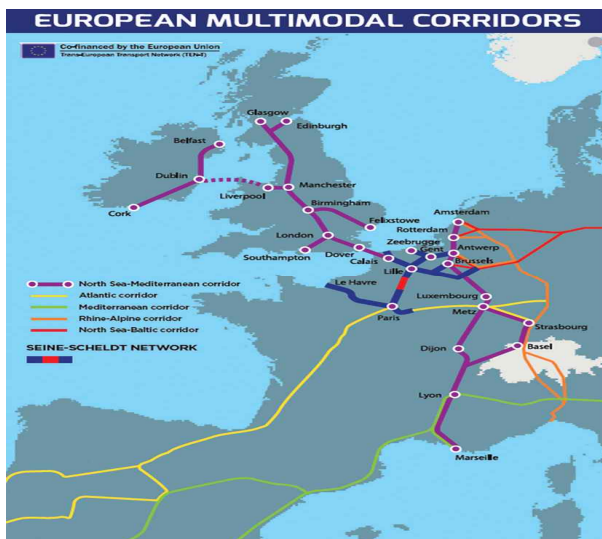
자료 : www.financialmirror.com, 2015.6.22.

손보라 연구원 (☎ 051-797-4781, bora62@kmi.re.kr)

□ 센강-노르 간 운하 프로젝트 허가

- 프랑스 항로청(The French navigable waterways authority)은 엔지니어링 회사인 로얄 하스코닝(Royal Haskoning)DHV사와 컨설팅 회사인 세텍(setec)컨설팅 그룹을 본 신규 운하 프로젝트 수행 기업으로 선정함
- 본 운하 프로젝트는 파리 근교의 센강(Seine)의 분지와 릴(Lille) 근교의 스켈트 강(Scheldt)을 연결하여 프랑스, 벨기에, 네덜란드의 내륙수로 네트워크(Inland waterways networks)를 연결하는 프로젝트임
- 프랑스와 벨기에를 연결하며, 다양한 설비와 시설이 요구되는 본 센강-노르(Nord) 간 운하 프로젝트는 총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
- 오스트리아 교통·혁신·기술부(Austrian Federal Ministry for Transport, Innovation and Technology)의 자회사인 비아 도나우(Via Donau)사는 상기의 두 기업을 지원 하며 본 합작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힘

<유럽 멀티모달 회랑>



자료 : www.container-mag.com

<센강-노르 운하 프로젝트>



자료 : www.anbinlogistics.wordpress.com

- 4,400톤 급까지의 선박 운항이 가능도록 설계된 본 신규 운하는 유럽 내륙수로 네트워크(European waterway network)의 심각한 병목현상을 대폭 완화시켜주고, 유럽 내륙에 있는 도시들과의 연계성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
- 본 운하는 길이 107km, 폭 54m, 수심 4.5m로 준설될 예정이며 6개의 수문과 3개의 다리가 설치될 예정임
- 센강-노르 간 운하 프로젝트는 '15년 6월에 착공하여 '25년에 개장하고 '27년까지 완공될 예정임

자료 : www.container-mag.com, 2015.6.29.

고재성 연구원 (☎ 051-797-4776, jsko@kmi.re.kr)

물류시장동향

□ 세계은행, 인도 화물철도공사에 6억 5,000만 달러 차관 승인

- 세계은행은 인도 북부지역 중심을 가로지르는 1,840km구간의 철도 공사에 6억 5,0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음
- 인도 철도의 대부분은 독립 전 영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,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 중 하나이지만, 화물량의 증가에 대처해 철로를 확장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
- 프로젝트 책임자인 Ben L. J. Eijbergen씨는 매년 7%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 철송물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추가 노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음
- 철도 운송에서 화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1950년의 90%에서 오늘날에는 1/3로 줄어들었는데, 그동안 비효율적이고 고비용의 도로운송에 의존해야 했음
- 본 사업을 통해 인도 동부 콜카타 지역과 서부의 루디아나(Ludhiana)구간의 화물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운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자료 : www.transreporter.com, 2015.7.2.

이건우 전문연구원 (☎ 051-797-4783, gunwoo@kmi.re.kr)

□ DHL, 카자흐스탄 철도공사와 철송관련 MOU 체결

- 글로벌 포워딩사인 DHL은 중국-카자흐스탄-CIS-유럽간의 철도운송 연결을 위해 카자흐스탄 철도공사(KTZ: Kazakhstan Temir Zholy)와 MOU를 체결함
- DHL은 지난 수년간 아시아-유럽간의 철도화물 운송량이 증가함에 따라 중계 무역 허브로서의 카자흐스탄의 성장 잠재력을 확인했음
- 현재 중국-EU간 물동량은 하루 10억 유로에 달함
- DHL은 이번 MOU를 통해 철도운송 네트워크를 강화하고, point-to point 서비스 및 국경간 운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함
- 또한 교통부분이 국가 서비스 수출의 10%를 차지하는 카자흐스탄의 특성상 이번 MOU로 카자흐스탄이 중국-EU간 중계무역의 허브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
- 카자흐스탄 철도공사는 물류시설 및 운송능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온도조절 컨테이너 등을 제공하여 중계무역 외 중앙아시아 물류허브를 구축하고자 함
- 이 계획은 카자흐스탄 Khorgos 경제특구(Special Economic Zone)가 설립되면 더욱 빠르게 실현될 것으로 전망됨

자료 : railandroad.logistics-business-review.com, 2015.7.1.

김은미 연구원 (☎ 051-797-4778, usea1004@kmi.re.kr)

< 중소·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>

□ 한국해양수산개발원(KMI)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는 **중소·중견 물류기업을 대상으로** 다음과 같이 **해외진출 상시 컨설팅**과 **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**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□ 대상기업

- 「물류정책기본법」에 의한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중소·중견기업
 -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% 이상인 기업 포함
 - ※ 중소·중견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적용 대상기업

□ 대상사업

- 해외 물류시설(물류단지·센터·창고·항만·복합물류 터미널 등)의 개발·투자·운영 사업
- 해외 화물운송 및 물류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법인·지사·사무소 설립 사업
- 상기 관련 M&A 및 기타 해외 물류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

□ 지원내용

1.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

- 진출희망 지역 또는 추진하려는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현지 시장정보 및 진출·투자 여건 등 기초정보에 대해 단기 컨설팅 지원
 - 현지 경제·무역·인프라·물동량 현황, 투자 관련 법·제도 등에 관해 기업이 문의 시, KMI가 보유하거나 입수 가능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해당 문의사항 관련 정보 제공
- 컨설팅 결과물은 문서 형태로 제공

2.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

-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해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, 현지 공동조사(KMI 연구진과 물류기업 임직원이 동반)를 수반한 중기 컨설팅 지원
 - 필요시 해외투자 유관기관 및 현지 유관기업 관계자와의 상담 주선
 - ※ 현지 공동조사에 수반되는 출장비 등은 KMI와 해당기업이 각자 부담
- 조사 종료 후 공동조사 보고서 제공

□ 지원사업별 신청방법

1.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

- 신청기간 : 연중 상시 신청
- 신청방법 : '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'(별첨 1)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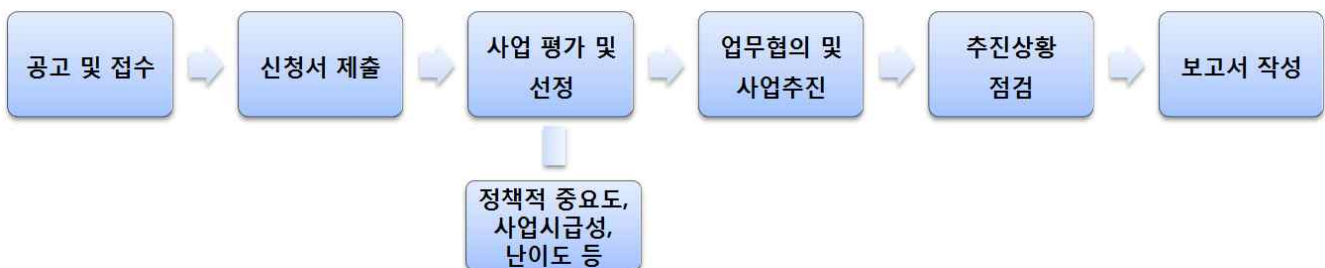
2.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

- 신청기간 : 연중 상시 신청
- 신청방법 : '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지원 신청서'(별첨 2)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
- ※ 담당자 : 김은우 전문연구원(hisgrace@kmi.re.kr), 손보라 연구원(bora62@kmi.re.kr)

□ 신청서 평가 및 기타

- 선정기준
 - 해당 사업의 실현 가능성 · 시급성 · 난이도, 정책적 중요도,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·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 · 지원
- 선정결과 발표 : 신청서 접수 후 2~3주 이내 개별 통지
- 유의사항 :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등은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기타 사항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(김은우 051-797-4772 / 손보라 051-797-4781)로 문의
- ※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

□ 사업 추진절차



< 2015년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 공모 >

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3 및 「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」 제4조에 따라 2015년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증계획을 공고합니다.

2015년 4월 17일

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센터

(한국해양수산개발원)

1. 신청기간

2015년 4월 17일(금) 09:00 ~ 2015년 7월 31일(금) 18:00

2. 신청자격

「항만법」 제2조제4호 및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구역에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

* 물류창고업 등록 사업장별로 인증 신청

3. 신청방법, 제출서류 등 기타 사항

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 내 인증계획 공고문 및 별첨자료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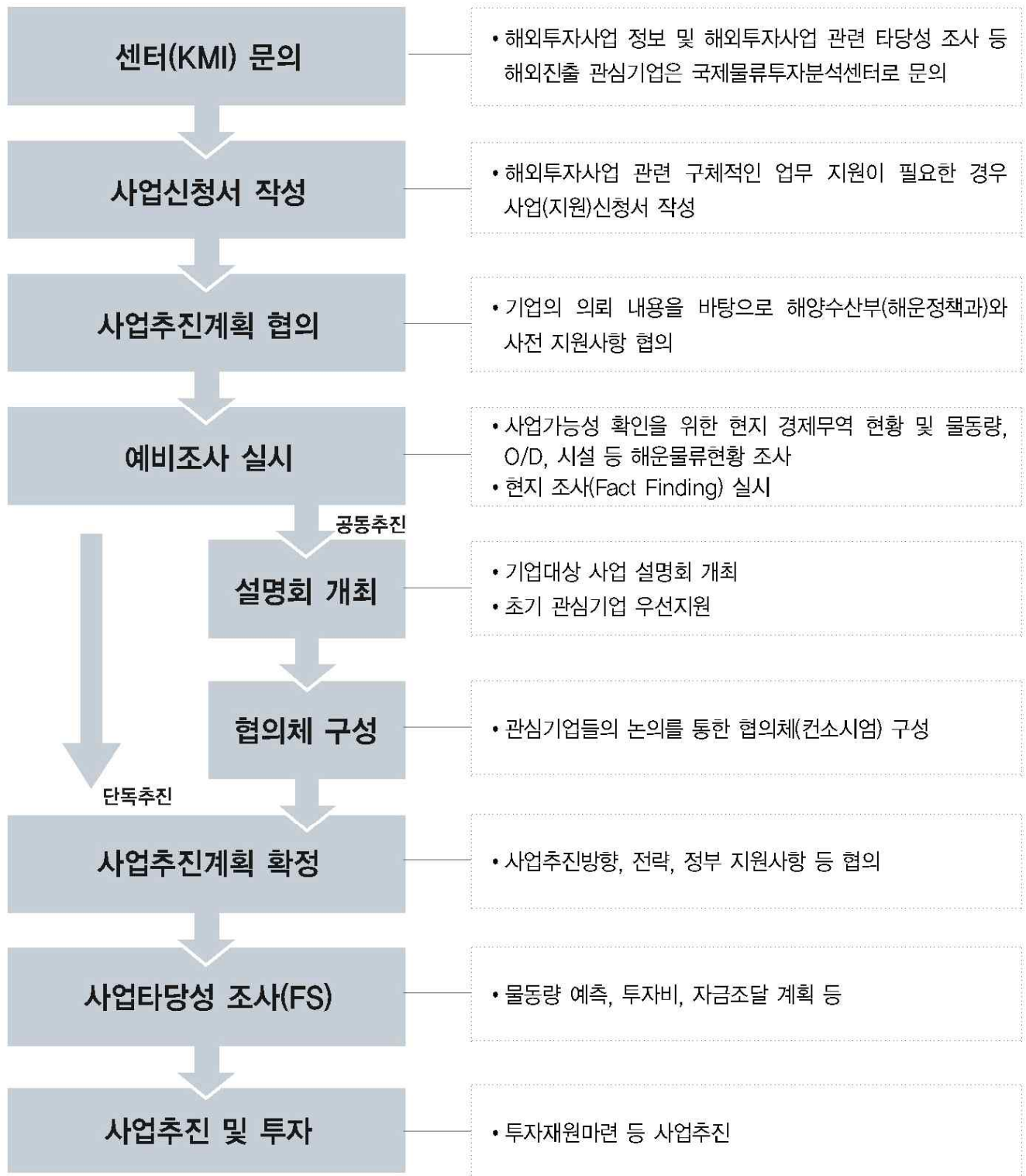
4. 문의처

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센터 (한국해양수산개발원)

김은미 연구원(051-797-4778, usea1004@kmi.re.kr)

김주혜 연구원(051-797-4779, joohye915@kmi.re.kr)

[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]



* 기초타당성 조사(실비 부담), 정부간 협상,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